

여성들의 임신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조 주 언 · 이 미 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은 출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임부 자신에게는 하나의 발달적, 상황적 위기로서 작용한다(Reeder & Martin, 1987). 이 시기에 여성들은 신체적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며, 아기가 없는 여성에서 아기가 있는 여성으로 바뀌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준비한다(Lederman, 1984 ; Mercer, 1986).

개체와 종족보존을 위한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으로 이해되어 왔다.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 윤리에 기초한 가족주의와 가족제도 안에서 인간 삶의 중심체가 가정이고 이 가정을 이어가는 주체는 자녀였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성은 중요했다(박영주, 1993).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가계 계승자를 얻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었고 가계 계승자를 생산하여 가계를 계승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의무이며, 효도이고, 자신들의 노후를 의지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절대사명은 가계 계승자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과거 우리나라 여성은 남의 집안에 들어와 자신의 '핏줄'을 낳아 모성이 됨으로써 그 집안에서 비로소 견고한 자신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유안진, 1980).

위와 같이 과거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어머니가 되어

야 하는 절대사명을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태도는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된 가족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자녀의 절대 필요성이 덜 강조되는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임신을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의 성욕이 반드시 생식 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모성간호의 철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최연순등, 1994 ; Alden & Harris, 1995 ; Collins, 1994) 여러가지 피임 방법의 개발로 그동안에도 여성들은 임신을 계획해 왔고 (Lederman, 1984) 최근에는 여성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강요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는 강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Hunt & Joffe, 1994) 이러한 주장과 발 맞추어 의학기술의 발달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만약 낳는다면 '언제 낳을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이전보다 더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조는 우리나라의 임부들에게서도 일부 나타났는데 이은희(1995)에 의하면 일부 초임부부들이 임신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했다고 한다. 반면에 임신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계획없이 임신되었기 때문에 출산하는 여성들도 있었다.(이은희, 1995)

이 세상의 어느 문화권에서도 임신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한다.(Callister, 199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사고와 새로운 사고가 공존하므로

* 석사학위 논문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이러한 문화권에서 사는 여성들의 임신관은 무엇인지, 그들이 임신을 계획한다면 왜 계획하는지, 무엇을 위해 임신하고자 하는지, 임신에 대한 가치관이 과거와 달리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의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임신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출산 및 진통에 대한 지각(Beck, 1983 ; Birch, 1986 ; Butani & Hodnett, 1980), 출산 지각과 어머니됨 등을 기술한 연구(Mercer, 1985) 불임의 의미 속에서 임신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한 연구(박영주, 1993), 초산모를 대상으로 출산의 경험을 통한 임신의 의미를 기술한 연구(김현경, 1993)들이 있었으나 이들 연구들은 임신관을 단편적으로 다루었거나 임신관 보다는 출산 경험이나 불임의 의미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문화를 배경으로 임신자체를 하나의 현상으로 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한국문화 안에서 임신이라는 하나의 현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들의 임신관을 규명함으로써 임부의 심리, 정서, 사회적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문제

1. 한국문화 속에서 가임기 여성들이 임신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2.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관은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II. 문헌고찰

본 연구의 문헌고찰은 여성들의 임신관을 대변할 수 있는 임신의 동기와 문화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임신 동기

임신을 통해 부모가 되는 과정은 생물학적인 과정일 뿐 아니라 심리적인 과정으로(Walker, 1992) 인간생활의 한 부분이며 생명에 경외심을 갖게 한다(Reeder & Martin, 1987 ; Strandley & Copans, 1979). 또한 출산은 여성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가장 즐겁고 감각적인 경험이며 정서적이고 극적인 사건이다(최연순, 1988). 결

혼한 부부 간의 성 생활의 필연적 결과로 부인은 임신과 출산을 하며, 생식의 기능은 가족이 갖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최연순, 1988).

오늘날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결혼한 부부의 의사결정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자녀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부모 됨의 동기는 자녀를 갖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며 개인마다 특별한 생각이나 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Bigner, 1985). Rabin(1965)은 부모가 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숙명적인 이유로서 인간은 주어진 운명에 따라야 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를 가짐으로써 가계가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타주의적 견해로서 부모가 되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고자 하는 비이기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다. 셋째 자기도취적 동기가 있는데, 자녀를 갖는 것은 자신의 선(善)을 나타내 주고, 아기를 갖기에 적당한 만큼 성인으로서 성숙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준다. 또한 부모가 됨으로써 자신은 보통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도구적인 심격을 띤 것으로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 이 동기는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거나 부부 간의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것을 포함한다.

부모 됨이란 실제로 부모가 되기 전에 심리적인 동기로서 작용하며, 부모 됨의 동기는 본능이 아니라 획득된 것이라 한다(Bigner, 1985). 또한 이러한 부모 됨의 동기는 각 개인에 따라 내부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문헌(최영희와 이경혜, 1988 ; Bigner, 1985)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확장(egoexpansion)으로 자녀를 가짐으로써 영생감, 자기연장, 자기불멸감 등을 갖는다고 한다. 둘째 사회적 지위획득으로 자녀를 가지면 사회적으로 자랑스러운 새 지위를 얻게 되며,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자녀, 특히 아들을 낳음으로써 며느리의 지위가 확고해지고 무자녀라는 칠거지악의 한 조건을 면할 수 있었다. 셋째 사랑 및 애정의 욕구로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위협에서 보호하며, 또한 자녀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음으로써 가장 친애적인 감정적 교류를 갖게 된다. 넷째 창조와 성취감으로 자녀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진다. 또한 자녀를 통해 자기의 계획을 실현시키고 더 나은 후손을 남기려는 욕망을 갖는다. 다섯째 정서적, 상

징적 동기로서 부모 됨은 정서적, 상징적 보상을 준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심리로서 부모역할은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며 특히 가정 밖의 일에서 만족 못한 여성에게는 임신이 정서적인 보상을 준다. 마지막으로 운명론적 동기로서 임신을 막는 것은 신에 대한 죄이며, 인간은 생명의 창조를 막아서는 안되고, 부모의 존재이유는 자녀를 생산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문헌에 나타난 부모 됨의 동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모성은 여성의 삶 중에서 가장 만족스런 역할이기도 한데, 모성의 어려운 면은 모성과 함께 실현해 내야만 하는 많은 부가적인 역할들에 기인한다.(Mercer, 1986)

2. 임신 동기와 문화적 영향

임신은 생리적인 우연한 사건이라기 보다는 동기화된 인간 행동으로서 인정되며, 임신 동기는 종교적,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Anderson, 1986 ; Callister, 1995 ; Reeder & Martin, 1987). 한 여성의 임신 동기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에는 여성들이 부여한 의미와 주관적인 중요성이 있다.(Alpen (Callista, 1995에서 인용) ; Balin (Callister, 1995에서 인용))

일부 학자들(이영숙 등, 1992 ; Callister, 1995)에 의하면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임신관이 있다. 미국문화에서는 부부와 어린이를 포함한 핵가족에 초점을 두며, 부부는 어린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적응이 되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지지할 수 있을 때까지 첫 아기를 갖는 것을 미룬다. 흑인들은 남녀가 완전한 인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프에르토리코 부부들은 남편이 생식력이 있고 부인은 가임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빨리 첫 아기를 갖는다고 한다. 멕시코계 미국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은 임신을 결혼한 여성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 임신의 임신한 여성 신체상의 행복으로 받아들여졌고, 유대인들은 임신을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며, 임신한 여성은 자신이 피조물로서의 목적을 성취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이와같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부모가 되어야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결혼과 분만을 해야 높은 지위에 오르며 자녀가 많을수록 지위가 높아진다.

하영수(1988)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임신 동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상호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여성다움에 자신이 있고, 그 여성다움을 더욱 확인하기 위해, 또는 부인으로서 그들의 적합성을 보이기 위해, 그들이 성취하지 못한 직업적 포부를 대신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의 상징으로, 그리고 그녀와 남편의 사랑의 표현으로 임신을 원한다고 한다. 김현경(1993)은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식을 가짐으로써 여성들은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본신이 생겼음을 확인하고, 여자로서 대를 잇는 도리를 다하고, 모성의 위대함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상적인 임신 동기와는 달리 박영주(1993)는 독특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불임여성들이 느끼는 임신관을 제시하였다. 이들 불임여성들의 임신관은 자식은 대를 이어주고, 부부 공동의 삶의 목적을 줌으로써 부부 관계를 지속시키며, 그러므로써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노후를 보장해 주는 도구적 의미를 강하게 보였다.

각 여성의 임신 동기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개념화되어졌는데, Griffith(1982)는 문화적 체계의 네가지 요소에 초점을 둔 임신 동기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임신 동기의 네가지 개념은 문화적 영향에 의한 가치체계, 결혼과 가계혈통으로 부터 규정된 의무와 책임으로서의 혈족관계, 지식과 믿음체계,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체계 등이다. Veevers(1973)는 부모기의 사회적 의미를 도덕성, 책임감, 자연성, 성(性)인식과 신체적 성숙, 결혼, 정신위생의 여섯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감을 수행하는 것이며, 정부나 문화는 세대가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존속을 위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수행하며, 부모가 되는 것은 성인으로서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동시에 결혼한 부부의 성 생활에 의한 자연스런 결과로 설명하였다. Callister(1995)는 미국의 물몬교 여성, 캐나다의 정통 유대인 여성, 핀란드의 루터교 여성들을 대상으로 세 문화권에서의 임신 동기를 연구한 결과 임신은 성인의 발달 과업 수행이며, 모자 간의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라는 공통 개념을 발견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30대의 가임기 여성으로 다

음과 같은 기준에 맞는 여성이었다.

- 1)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 2)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
- 3) 연구에 참여하기를 수락한 여성.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신뢰관계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Leininger, 1985)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위의 기준에 맞는 본 연구자의 지인(知人)과 지인(知人)의 추천으로 알게 된 여성들을 면담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더 이상의 새로운 의미있는 진술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심층면담을 한 결과 총 21명이었다.

이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21세부터 32세 사이에 분포되었다. 결혼상태는 기혼 8명, 미혼 13명이었다. 교육정도에서는 고졸 10명, 대졸 8명 등 비교적 높은 학력수준을 나타냈다. 종교는 기독교 5명, 천주교 3명, 불교 3명이었고 10명은 종교가 없었다. 직업을 가진 대상자는 17명이었으며 4명은 무직이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의 관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중지(Bracketing)를 위해 대상자의 기술에 충실하여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1994년 9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총 21명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이용한 심층면담이었으며, 면담장소는 연구대상자가 편안하게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정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의 기분과 심신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대상자의 편리한 시간에 맞추어 면담일정을 정하였다. 면담시는 대상자의 표현을 생생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긴장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녹음기를 가능한 대상자의 시선에 띄지 않게 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3명의 대상자에게 예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목적에 합당한 기초 질문을 만들어 면담 초기에 사용하였다. 면담의 진행은 우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일상적인 이야기, 최근의 근황 등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런 분위기를 유도해 나갔으나, 대

상자에 따라서 바로 본 질문을 하고 나중에 일반적인 특성에 관하여 묻기도 하였다. 본 질문에 들어가서는 미리 준비한 질문내용을 기초로 면담을 이끌어 갔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말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따로 질문할 필요없이 그대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체로 거론된 질문내용은 “만약 결혼을 하신다면 아이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임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 임신하고 있다면 그 기분이나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있다면 결혼생활이 어떻게 변하리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있다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변하리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불임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등이었다. 기혼자로서 이미 아이를 낳은 대상자에게는 “결혼 후 언제쯤 아이를 갖고자 했습니까?” “왜 임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미혼자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내용을 과거형으로 바꾸어 질문하였다.

위의 질문은 반드시 공식적이고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미있는 내용이 나올 경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확인하였다. 각 대상자당 1회의 면담이었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20~30분이었다.

당일에 녹음된 자료는 면담이 끝난 후 기술된 표현 그대로 필사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Van kaam이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Parse, Corne & Smith, 1985).

1단계 : 기술적 표현(descriptive expression)을 이끌어 낸다.

대상자들이 말한 표현들을 직관(intuiting), 분석(analyzing), 기술(describing)을 통하여 읽은 후 각 대상자에게서 나온 표현들을 목록화한다.

2단계 : 경험의 공통요소(common element)를 확인한다.

임신관의 공통요소를 찾기 위해 추출된 의미있는 진술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직관, 분석, 기술과정을 이용하여 공통되는 특성으로 묶어 범주화시키고 그 빈도를 확인한다. 공통요소는 다른 응답자들의 언급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한 응답자에 의해 표현된 한 순

각이나 주제에 대한 기술이다.

3단계 : 임신관과 관련되지 않은 표현을 배제한다.

4단계 : 임신관의 가설적 정의를 공식화한다.

대상자들이 기술한 공통요소로 부터 가설적 정의를 형성한다.

5단계 : 가설적 정의를 원자료에 적용한다.

대상자의 기술적 표현에 가설적 정의를 적용시켜 그 일치성을 조사한다.

6단계 : 구조적 정의(structural definition)를 확인한다.

개인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 한 경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기술을 확인한다.

IV. 연구결과

한국문화 속에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관은 원자료의 빈도 순으로 볼 때 <관습>, <부부애>, <안위추구>, <자아충족감>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임신관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서 82개의 서술적 표현이 발견되었고, 14개의 공통요소가 추출되었다. 공통요소는 4개로 범주화되었다. 각 범주의 공통요소별 빈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임신의 동기에 대한 범주화 내용.

범 주	공 통 요 소	빈도
관 습	중 족 보 존	10
	본 능	8
	의 무	8
	당 위 성	7
	구 성 원	3
부부애	공 동 체 의 식	10
	권 태 기 극 복	8
	결 정 체	5
안위추구	희 망	4
	외 로 움 회 피	4
	타 의	4
	노 후 대 비	1
자아충족감	모 성 애	7
	대 리 욕 구	3

범주 내에 포함된 공통 요소와 공통 요소로 집합된 원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습>의 범주는 「중족보존」, 「본능」, 「의무」, 「당위

성」, 「구성원」등 5개의 공통요소로 구성되었다.

「중족보존」의 공통요소에서 대상자들은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긴다는 관습이 있잖아요.” “나의 분신이고 내가 이 세상에 다녀간 흔적이죠.” “또 하나의 내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저 관습이겠지요. 전례적으로 그랬으니까.” “계속 자기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나와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내 뒤를 이어준다면 좋지 않을까요.” “중족보존의 법칙이랄까요.” “원초적으로 중족보존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뺨대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개인의 역사가.” “후손을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를 영원히 남기는 게 아닐까요.”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나라 전통사상이 내포된 가계 혈통중심의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본능」의 공통요소에서 대상자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당연한 과정이죠.” “그냥 생기니까. 생기니까 낳겠죠. 대부분 가지려고 했던 것 보다 생각없이 많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낳는 거죠.”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낳고 산다고 생각해요.” “애기는 낳아야지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문화적인 가치관인데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라고 표현하면서 임신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임을 나타내었다.

「의무」의 공통요소에서 대상자들은 “안 낳으면 내 할 도리를 다 안한 거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만약 애가 없다면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아야죠.” “결혼을 하면 낳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 나의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임신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 하잖아요.” “애기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안보일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경험을 해보아야지요. 애기를 못 낳는다면 여자로서의 결함일 수 있으니까요.” 라는 표현으로 출산의 의무를 가장 주요한 여성의 성 역할로 규정짓고 있으며, 생산의 역할을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성숙된 여성임을 자신과 남에게 증명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당위성」의 공통요소에서 대상자들은 “당연한 거라

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돼요.”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당연히 결혼을 하면 애기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것 있잖아요.”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과정이죠.”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요. 부부사이에는 필연이지요. 애기는.” “결혼을 하면 생리적인 것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애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론학상으로 결혼이 번식 그런 것도 있잖아요.” 라고 표현하면서 임신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성 생활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당연한 과정임을 나타내고 있다.

「구성원」의 공통요소에서 대상자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는 그런 기본이 아닐까요.” “가정이란 자체의 단어를 쓸려면 아이가 있는 가정이 될 것 같아요.” “가정이라고 하면 애기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라는 표현을 하면서 가정의 구성원에서 자녀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부부와 자녀가 모여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부부애〉의 범주에서는 「공동체 의식」, 「권태기 극복」, 「결정체」등 3개의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다.

「공동체 의식」의 공통요소에서 “부부 둘이만 사는 것은 어느 일정시기가 지나면 둘만이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 생겨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로서 둘 사이의 공간을 채워 준다고 생각해요.” “자식으로 두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두사람을 더 가까우게 해요. 서로 별할 애기가 없는 부부들도 애를 통해서 더 애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나 내생활을 위해서 애는 사실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둘 사이를 묶어 준다고 하잖아요.” “나와 그 사람의 반반의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식었다 치더라도 연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쪽이 뭔가 비어 있지 않고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동관심사 내지 공동체 의식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의식이 생길 것 같아요.” “두사람과 그리고 가족간의 그 어떤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내자식이다 생각하면 서로가 더 중요하게 생각된대요.” “애기로 인해서 싸우기도 하면서 대화가 많이 진행되잖아요.” “애기가 있으면 더 화목해지고 끈을 잇는 부부관계가 더 강하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애기가 부부관계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하잖아요.

더 결속을 강화시킨다고 할까요. 우리의 공통분모이니 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혼할 때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에서 부부와 그 가족 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아이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권태기 극복」의 공통요소에서 “결혼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싫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로서 활력을 다시 찾는 거죠. 이젠 관심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힘이 들어도 그냥 애기 키우는 것이 정신없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아서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생활에 찌들고 막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한테 애를 키우면서 거기에 대한 보람이라든가 기대를 하니깐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지 더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해서 약간 권태스럽다 싶으면 일년 지나서 낳고 싶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해지고 이젠 다 알 것 다 알고 그런 상태면 재미없잖아요. 그때 애기를 탁 나면 애기한테 시선이 가니까 그 동안 서로 등한시켰던 거 애때문에 더 살아나고 그럴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지면 또 생활이 없잖아요. 한 일년정도 있다가 낳으면 좋겠어요.” “권태라는게 오고 그럴 때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만큼 사랑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아이를 보면서 일종의 자기위안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하면서 임신은 결혼생활의 권태기나 위기의 극복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자식의 도구적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결정체」의 공통요소에서 “남편과 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할까요.” “우리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애기를 원하는 거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고 그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서 내 반이고 이 사람의 반이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에서 사랑의 결정체로서 아이가 있으며, 임신은 사랑의 한 표현임을 나타내고 있다.

〈안위추구〉의 범주에서는 「희망」, 「외로움 회피」, 「타의」, 「노후대비」등 4개의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다.

「희망」의 공통요소에서는 “나에게 아주 큰 삶의 의미를 주겠지요. 희망도 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위안이 되고 더 많은 부분을 의지하게 되겠죠.” “애가 있음으로서 엄마 아빠가 항상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삶에 지쳐 있어도.” “정신적인 기쁨이나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애기를 통해서 힘든 일도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 아니지만 내 생활의 기쁨이고 기쁨이 애한테서 저절로 생길 것 같고요. 행복이 저절로 생길 것 같아요.” 라는 표현에서 아이로 인한 생활의 기쁨을 단적으로 드러내며, 또한 아이는 삶의 희망원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외로움 회피」의 공통요소에서는 “부부가 사는 것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입장을 해서라도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에서 둘만이 산다면 좀 외롭지 않을까요.” “사람이 외로운 게. 외로워서 낳을 것 같아요.” “아이가 없다면 좀 외로울 것 같아요.” 라는 표현에서 아이 없는 부부생활의 단점을 회피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부부의 좋은 동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타의」의 공통요소에서는 “부모님들이 원하니까.” “남자 쪽이 원하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럴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이 원하잖아요.” “장남이고 부모님이 바라니까 낳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아들이니까 낳아야죠. 부모님이 원하는데 안 낳으면 제가 힘겨워질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배우자나 가족의 타의에 의한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한 임신관을 나타내고 있다.

「노후대비」의 공통요소에서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옛말도 있지만 노후를 생각해서 낳는다고 생각해요. 노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의 표현이 있었으며, 전통사상에서 유래된 부모봉양의 가족문화 속에서 생산능력의 결과인 자식과의 의존적인 관계형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볼때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충족감〉의 범주에서는 「모성애」, 「대리욕구」 등 2개의 공통요소로 분류되었다.

「모성애」의 공통요소에서 “권태라기 보다는 아이를 꼭 갖는 것은 아이를 그저 키우고 싶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키우고 키워 주는 그런 과정에서 정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성애라는

것도 한번 경험해 봐야 할 인생의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의 사랑을 주고 싶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자식을 낳는 기쁨이 있어야지요.” 라는 표현에서 한국 전통사상에 바탕을 둔 무조건적 모성애를 나타내고 있다.

「대리욕구」의 공통요소에서 “자기가 채우지 못한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대리욕구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 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애기로 하여금 더 대리만족도 할 수 있지요.” 라는 표현에서 대리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자녀를 통해 자아성취감을 보상받으려는 것으로 자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V. 논 의

한국문화 속에서 여성들의 가장 지배적인 임신관은 〈관습〉이었다. 다음으로 〈부부애〉가 많았으며, 〈안위추구〉와 〈자아충족감〉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임신관은 임신을 추구하는 동기와 자녀에게 두는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임신은 종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거나, 여성의 의무 임신의 당연한 결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임신 동기는 자연스럽게 임신한 사람들에게서는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Neeson & May, 1986) 반면에 불임인 여성에게서는 임신하려는 동기가 분명히 드러난다. 박영주(1992)의 불임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식의 의미는 “대를 이음”의 의미로서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임신 동기 중에서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관습적인 동기가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안진(1980)에 의하면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은 가계 계승자를 얻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었고 가계 계승자를 생산하여 가계를 계승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의무이며, 효도이었으므로 여성의 절대사명은 가계 계승자를 생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자녀를 낳는 것은 대를 잇는다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졌다. 조혜정(1992)에 의하면 과거 여성들은 낯선 집안에 시집와서 자신의 자식을 낳아 가족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더해 갔으며 이런 의미에서 자식을 자식을 도구화시킨 부분도 매우 컸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그동안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임신은 그 자체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21세기에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직업인 여성들이 뒤늦게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Freda, 1994 : Quimby, 1994) 현재 일부 여성들이 자아 성취를 위해 임신을 선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미래에는 자아 성취를 이룬 여성이 뒤늦게 임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임신이 그 자체에 당연히 해야 할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임신 출산 및 육아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체감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종족 보존이라는 사고는 남아가 가계를 이어 온 전통 때문에 쉽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남아 선호 사상은 일부 가정에서 당분간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습〉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범주는 〈부부애〉였다. 〈부부애〉의 공통요소 중에서 『공동체 의식』과 『권태기 극복』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현대 여성들이 부부 관계를 중요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경향은 부모와 자녀가 종적으로 세대를 이루면서 가통(家統)을 잇던 가족구조에서(최연순등, 1994)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하겠다. 임신 동기로서 관습과 부부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관이 전통적인 문화와 새로운 사조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종적으로는 가계를 계승하여 자기를 이어준다는 지속감(sence of continuity)을 주고, 삶의 희망원이자 부부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으로써 작용하며, 자신의 자아충족감을 보상받기 위한 도구적 의미도 갖는다. 자녀를 가진 부부에 비해 불임 부부는 만족감이 덜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성적 만족감 역시 낮았다.(Hirsch & Hirsch, 1989) 자녀가 갖는 도구적 의미에는 노후 보장 측면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임신을 생각한 여성은 단 한명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미혼인 경우와 20대 후반이므로 아직까지 노후 생활에 대한 현실감이 없거나 현대 젊은 여성들이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임을 시사한다고 보겠다. 앞으로 여성들이 이런 자세로 자녀를 기른다면 미래 우리 나라 여성들의 자녀 양육 태도, 가정경제관리 형태, 이들 세대의 노후 생활 양상에 변화가 따르리라 예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신 동기를 숙명적인 동기, 이타주의적 동기, 자기도취적 동기, 대리만족 동기로 구분한

Rabin(1965)와 가치체계, 혈족관계, 지식과 믿음체계, 종교적 체계로 분류한 Griffith(1982) 및 성인의 발달과업 수행이며 모자간의 보이지 않는 끈이라는 Callister(199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임신은 결혼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현상이요 당연한 것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고 보여진다. 여성들의 임신관이 이러하므로 일부 여성주의자들이 임신이 여성에게 의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해도 여성들은 계속 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한국문화 속에서 가임기 여성의 임신관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실무에서 간호사가 임부의 심리, 정서, 사회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20~30대 가임기 여성으로서 총 21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1994년 9월부터 11월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이용한 심층면담이었다.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한후 나중에 필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Van kaam이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신관에 대하여 82개의 서술적 표현을 얻었으며, 여기에서 14개의 공통요소가 형성되었고, 최종적으로 〈관습〉, 〈부부애〉, 〈안위추구〉, 〈자아충족감〉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관은 문화적 관습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여성들은 임신을 본능적인 과정과 부부간의 성생활의 당연한 결과로서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아직도 임신은 여성의 사명이요, 자녀는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 위에 자녀는 부부애를 더해 주고 외로움을 메워주는 존재라는 새로운 인식이 심어지고 있다.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거나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는 매우 적었다.

임신은 여성만의 임무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므로 남성들의 자녀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김현경(1993). 초산모의 출산경험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탁영주(1993). 불임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우안진(1980).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정민사.
- 이영숙, 고명숙, 김혜자, 박공례, 박난준, 심미정, 오현이, 이숙희, 이은숙, 장인옥, 한혜실(1992). 모성간호학, 서울 : 현문사.
- 이은희(1995). 초산 부부의 임신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조혜정(1992). 한국의 남성과 여성,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최연순, 장순복, 조희숙, 최양자, 장춘자, 박영숙, 이남희(1994). 모성간호학, 서울 : 수문사.
- Bigner Jerry J. 이경우 역(1985). 부모-자녀관계 부모교육 입문, 서울 : 창지사.
- 최연순(1988). 모성간호학, 서울 : 수문사.
- 최영희, 이경혜(1988). 가족중심간호학, 서울 : 신광출판사.
- 하영수(1988). 모성간호학, 서울 : 수문사.
- Alden, Kathryn R. & Harris, Betty G.(1995). Choice in Childbearing, Fogel, Cathrine I. & Woods, Nancy F.(Ed.). Women's Health Care (385-406),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Anderson, S.(1986). Traditional maternity care within a bio-social framework,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33(4), 102-106
- Beck, C. T.(1983). Parturients' Temporal Experiences during the Phases of Labor,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5, 283-295.
- Birch, E. R.(1986). The Experience of Touch Received during Labor : Postpartum perceptions of Therapeutic Value, Journal of Nurse-Midwifery, 31, 271-276.
- Butani, P. & Hodnett, E.(1980).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labor experiences, Journal of Maternal-Child Nursing, 9, 73.
- Callista, Lynn C.(1995). Cultural meanings of childbirth, JOGNN, 24(4), 327-330.
- Collins, Judith B.(1994). Women and the health care system(3-16), Youngkin, Ellis Q. & Davis, Marcia S. (Ed.) Women's Health A Primary Care Clinical Guide, Conneticut : Appleton & Lange.
- Freda, Margaret C.(1994). Childbearing, reproductive control, aging women, and health care : The projected ethical debates, JOGNN, 23(2), 144-152.
- Griffith S.(1982). Childbearing and the concept of culture, JOGN Nurs., 11(3), 181-184.
- Hirsch, A. M. & Hirsch S. M.(1989). The effect of infertility on marriage and self-concept, JOGNN, 18, 13-20.
- Hunt, Jean & Joffe, Carole(1994). Problems and prospects of contemporary abortion provision, (163-174) Dan, Alice J.(Ed.) Refaming Women's Health,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 Sage Publications.
- Lederman, R. P.(1984). Psychosocial adaptation in pregnanc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 Leininger(198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Orlando : Grune & Stratton, Inc.
- Mercer, R. T.(1986). First-Time Motherhood Experiences from Teens to Forties, N. Y. Springer Publishing Co.
- _____ (1985). Relationship of the Birth Experience to Later Mothering Behavior, Journal of Nurse-Midwifery, 30, 204-211.
- Neeson, Jean D. & May, Kathrine A.(1986). Comprehensive Maternity Nursing,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 Parse, R. R., Corne, A. B. & Smith, M. J.(1985). Nursing research : qualitative methods, Bowe, maryland : brady communications Co.
- Quimby, Charlotte, H.(1994). Women and the family of the future, JOGNN, 23(2), 113-123.
- Rabin, A.(1965). Motivation for parenthood,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29, 405-411.
- Reeder, S. J., Martin, R. R.(1987). Maternity Nursing, 16th ed.,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Co.
- Strandley, K. & Copans, S.(1979). Dimensions of

Prenatal Anxiety and their influence on Pregnancy outcome, American Journal of OB. & GY., 135(1). 22–26.

W. S. S. (1973). The social meanings of parenthood, Psychiatry, 36, 291–310.

Walker, L. O. (1922). Parent–Infant Nursing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Childbirth, Parent–Infant Nursing Science : Paradigms, phenomena Methods, Philadelphia : F. A. Davis Company.

– Abstract –

Key concepts : pregnancy

Women's View to Pregnancy

Lee, Mi La · Cho, Ju 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Korean women's view to pregnancy within the Korean cultural context, to help nurses understand psychosocioemotional schema of the pregnant women, and to contribute to theory–building on the meaning of pregnancy.

The interviewees were 21 women in their twenties or thirties and they were selected by theoretical sampling technique. Thirteen women of the interviewees were single and others married.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from September November in 1994. Interviews were tape–recorded and transcribed. Data were analyzed by Van Kaam's phenomenological method.

Results were as follows.

Eighty two descriptive expression were found and they were grouped under fourteen common factors. These are 「to maintain family」, 「instinct」, 「obligation」, 「what one should do」, 「to make home」, 「to tie couple firmly」, 「means to overcome a period of lassitude」, 「token of love」, 「hope」, 「to avoid loneliness」, 「wanted to have a baby」, 「to provide for old ages」, 「to be a mother」, 「to achieve her desire through baby」.

Finally, fourteen common factors were grouped under four higher categories. Five common factors, 「to maintain family」, 「instinct」, 「obligation」, 「what one should do」, 「to make home」 were grouped under 〈custom〉. Three factors, 「to tie couple firmly」, 「means to overcome a period of lassitude」, 「token of love」 were grouped under 〈love between couple〉. Four factors, 「hope」, 「to avoid loneliness」, 「wanted to have a baby」, 「to provide for old ages」 were grouped under 〈pursuing safety〉. Two factors, 「to be a mother」, 「to achieve her desire through baby」 were grouped under 〈self–fulfillment〉.

At present, the most distinguishing motivation of childbearing was rooted in the cultural custom. Korean women thought that it was their duties to have children and children were necessary in life. But they were beginning to recognize that baby could tie couple more firmly and get rid of their loneliness. Korean women no longer considered their children as the one who would take care of them when they were old or who would satisfy their unmet needs.

As pregnancy is not women's duty only, authors recommend further studies on men's view to pregnancy.

*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 Teaching Assistant,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